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의 모색

한 숙 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 다문화상담에 대한 현황과 실태,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정상담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제언점을 논의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독교상담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마28:29)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가치관을 점검하고 기독교상담이 다문화가정을 향한 복음선교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상담자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가해자는 한국인폭력남편과 시부모, 편견을 갖고 있는 이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전통적인 한국문화와 가족문화를 지닌 한국인가족구성원의 어려움도 공감할 수 있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가족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고, 다문화가정의 서로의 문화적 차이, 기대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기대와 현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절충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결혼준비교육, 부모역할훈련과 같은 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동료상담프로그램, 지역사회 속으로 찾아가는 상담, 위기상황을 위한 전화 및 인터넷상담의 활용, 안내상담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상담과는 구별되는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지닌 전문교육, 슈퍼비전, 자격증제도 도입 등이 기독교상담자에게 필요하다.

중심단어 : 기독교상담, 다문화가정, 다문화상담, 결혼이주여성, 선교

• 논문 투고일: 2011년 10월 14일

• 논문 수정일: 2011년 10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8일

*한영신대학교

I. 여는 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아내가 외국인인인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건수는 472건이었고 외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가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보다 3배정도 많았으며, 부부가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 갈등, 장기별거 등 다양하였다.¹⁾ 2010년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0년 국제결혼자의 이혼은 11,245건으로 총 이혼율에 비한다면 9.6%정도가 된다.²⁾ 이와 같은 통계적 조사를 통해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여러 어려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이 가족간의 의사소통문제, 문화차이에 따른 갈등,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비인간적인 대우, 사회적 편견과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정체성혼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³⁾ 북한이탈 새터민 가정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보아도 이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그동안 13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다문화인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다문화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계화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다문화인구의 복지와 문화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교육적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실행되어 왔다. 그 지원은 주로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 취업 알선, 육아 일시 보호 등의 정책적 지원사업이

1) “조각나는 다문화가정”, 「뉴시스」, 2011.6.19.

2) 통계청, 2010년 이혼통계, <http://kostat.go.kr> 20

3)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8), 214-233.

4) 강경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의 한국사회 부적응문제와 기독교상담 전략”,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권(2006): 117-144; 김희경·신현균,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 29권 4호(2010): 707-724.

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높아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문화에 대한 반다문화를 표방하는 견해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등장하고 있다. 주로 불순한 목적으로 결혼한 외국여성에게 해 피해를 본 한국남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식하는 단순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이 내국인을 역차별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 다문화가정의 가해자는 폭력 한국남편이나 시부모, 편견을 가진 이웃이라는 그동안의 의식에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가족구성원이나 이웃도 피해자라는 반다문화정서가 일어나고 있어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갈등뿐 아니라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원체계나 정책적인 지원의 적극적 모색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욕구와 심리적 고통을 들어주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개별적인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수요조사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다수가 국제결혼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으나⁶⁾, 이들은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냥 당하거나 참는 등, 소극적인 문제해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⁷⁾ 한국적 다문화의 특성이나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지 못한 복지 정책

5) “다문화의 그늘”, 「연합뉴스」, 2011.9.26.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여행을 위한 정책 페러다임 구축(II)』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8). 주은선 · 이현정, “결혼이주여성대상 다문화상담관련 종사자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 29권 4호(2010, 12): 819에서 재인용.

7) 설동훈 외,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2005). 주은선 · 이현정, “결혼이주여성대상 다문화상담관련 종사자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819에서 재인용.

속에서 차별받는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과 상담적 개입은 필요하다.⁸⁾

다문화가정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인에게 맡겨진 이방족속이고 또 다른 영혼구원의 대상자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29)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상담자가 한국에 있는 다문화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주신 “모든 족속”(엡 2:19)임을 이해하고 기독교상담을 통해 이들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복음선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교회의 코이노이와, 그리고 샬롬의 개념은 교회가 다문화가정을 편견없이 도울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문화가정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한 공동체에서 다문화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도우려면 교회나 기독교상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일반상담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다문화상담사를 위한 자격증제도의 모색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상담만으로 다문화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꾀하도록 도울 수 없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상담의 이론과 실재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자는 성경적 관점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가치관을 점검하고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떻게 기독교상담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자의 인식, 가치관, 감정 등은 상담할 때 상담자의 역전이가 나타나는 등 상담에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상담자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생각, 감정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기독교상담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8) 개별적 상담적 개입이 필요한 만큼, 국내 다문화연구 중 상담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임은미·정성진·김은주, "국내 다문화 연구와 다문화 상담 연구의 현황",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0권 3호(2009): 1291-1304.

통해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살펴보고, 둘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탐색하며, 셋째, 다문화가정상담방법에 대한 여러 선행문헌을 정리하고 논의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기독교상담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다문화상담에 대한 이해

다문화상담에 대한 고찰은 다문화가정상담에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오다가 1973년 미국심리학회(APA) 연차대회에서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상담서비스는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교육기관들은 전문상담가들에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철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담자가 다문화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심지어 Pedersen은 심리학적 흐름에서 제1세력인 정신역동 심리학, 제2세력인 행동주의 심리학, 제3세력인 인본주의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상담은 상담학에서 세 세력의 흐름에 견줄 만큼 강력한 상담적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다문화상담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 대해 강조하였다.⁹⁾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것은 갈등과 혼란이 아니라 기회와 혜택이 된다. 다문화 상담이론은 포스트모던 철학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상담

9) P. Pedersen, *A Handbook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Awareness* (Alexandria, VA.: America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94). 한재희, 『한국적 다문화상담』 (서울: 학지사, 2010), 44-45에서 재인용.

이론이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Watts에 의하면¹⁰⁾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 상담이론에 대하여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지배적인 문화가 아닌 그 자체의 문화에 근거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다문화 상담이론은 다원론적이고, “자아”를 “관계 속에서의 자아”로 재형성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에게 유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¹¹⁾

동서양의 문화, 민족 간의 문화, 성별, 연령, 종교, 지역, 경제수준, 직업, 학력 가족관계 특성 등 여러 측면의 차이를 고려할 때 모든 상담은 다문화주의상담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상담은 동일민족 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나타나는 모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한다. 다문화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적 배경,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상담의 이론과 적용기법에 있어 문화적 유용성에 따른 특성을 적용하는 상담이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가 서로 다를 때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내담자의 문화의 개념 안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문화상담이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마음이 없다면 친밀한 상담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담관계에서 여러 긴장과 갈등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¹³⁾ 따라

10) R. J. Watts, "Elements of a Psychology of Human Divers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1992): 116-131. Derald W. Sue, Allen E. Ivey & Paul B. Pedersen,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Therapy*, 김태호 외 역, 『다문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태영출판사, 2008), 93에서 재인용.

11) Sue, Ivey & Pedersen,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Therapy*, 93-96.

12) 송미경,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제23집(2008): 42..

13) 한재희, “한국의 가족문화와 다문화상담”, 백석대학교, 『진리논단』 제16호(2008): 119.

서 다문화상담은 상담자에게 보편적 심리상담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과 더불어 차별화된 전문적인 문화적 역량을 요구한다.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상담자가 자신과 타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 다양한 문화와 집단에 대한 충분한 지식,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기술과 유연성 등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상담자는 일반상담자에 비해 더욱 많은 지식과 훈련이 요구되고 따라서 일반상담자보다 더욱 많은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예측해 볼 수 있다.¹⁴⁾

2. 한국의 다문화사회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논의는 1990년대 이주노동자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떠오르면서 거의 무비판적 수준으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고 조현상은 지적한다.¹⁵⁾ 그는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 사회 외국인 구성비는 전체 인구의 약2%대에 불과해서 10%대의 OECD 회원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 한국을 완전히 다문화사회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미 다문화사회는 국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전 지구적 문제로 부상했기에 다문화 사회는 지향하고 수용해야 하는 삶의 문제라고 하였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이주의 역사가 짧고 단일민족 의식이 뿌리깊은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포용과 관용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한 경험이 별로 없는 반면, 다문화 인구의 유입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 출신 지역이 동남아 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정

14) 주은선 · 이현정, “결혼이주여성대상 다문화상담관련 종사자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819-823.

15) 조현상,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2009), 161-169.

서상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았다.¹⁶⁾

앞으로의 한국사회변화에 대해 예측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첫째,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혼혈이 증가하고 민족의 정체성이 복잡해져 가며, 둘째, 이주 노동자, 유학생, 파견근무자 등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구성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셋째, 한국을 찾는 외국 여행객이 나날이 늘어나며, 넷째, 부모의 유학이나 해외 근무 중에 외국에서 출생하여 자란 ‘귀국 자녀’ 등이 늘어나고, 다섯째, 다른 언어/문화권의 체류 경험자가 증가하며, 여섯째, 각 학교에 다른 민족, 언어, 문화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¹⁷⁾

위의 연구들은 한국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서구의 다문화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징은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재 한국사회는 저항적 다문화사회형에서 발전적 다문화사회의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좀 더 성숙된 다문화사회형으로의 이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¹⁸⁾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와의 공존을 위한 한국사회의 인식변화는 불가피하고 유치원, 초, 중, 고교에서부터 다문화교육이 행해져야 하며 그 교육은 자민족우수성이나 단일민족의식의 강조보다는 타 인종과 민족에 대한 포용과 인정태도를 배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16) 조현상,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175.

1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서울: 도서출판 동녘, 2008), 227.

18) 조현상,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168.

3.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1) 다문화가정의 정의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여타 국가에 비해 강하여, 다문화 가정은 오랜 세월동안 혼혈 가정, 혼혈인 등으로 불리며 소외되었다. 하지만 ‘국제결혼가정’, ‘혼혈가정’과 같은 용어가 주는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¹⁹⁾ 다문화 가정은 한 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던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용어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반면,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²⁰⁾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²¹⁾ 다문화가족법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위해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법은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이고 국적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은 첫째,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결혼이주자 가정,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19) <http://ko.wikipedia.org>.

20) 조한숙,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10), 13-14.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http://www.mw.go.kr/front>.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 셋째,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을 만나 결혼한 새터민 가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²²⁾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유학생가정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을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 복음선교차원에서 본다면 외국유학생과 외국유학생가정의 한국생활 및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 등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이를 다루고자 한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정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고 결혼이주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정, 그리고 외국인유학생가정을 포함한다.

2) 다문화가정의 현황

최근 세계화 추세로 인한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확대로 세계 각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1년 6월 현재 그 숫자가 130만 9천여 명에 이르러 이미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중 14만 4천여 명이 결혼이민자들이다.²³⁾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10.5%로, 이는 전체혼인 중 10쌍 중의 1쌍이 국제결혼임을 나타낸다.²⁴⁾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성과의 혼인은 76.7%, 외국 남성과의 혼인은 23.3%로,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은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건수보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건수가 증가

22) 조영달 외,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1.

23) 통계청, 2010년 이혼통계, <http://kostat.go.kr>.

24)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에 상담서비스 효과적”, 『뉴스와이어』, 2011.10.06.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주로 중국(36.6%), 베트남(36.6%), 필리핀(7.3%) 순이며, 상위 2개국 이 차지하는 비중이 7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99년 8월부터 그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고, 특히 2003년 7월 1일 한·중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중국 어느 일방 국가에서 혼인동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²⁵⁾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여성과의 혼인은 감소한 반면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몽골, 구소련 여성과의 혼인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대, 만혼화(晩婚化)와 저출산현상 등으로 농촌 총각 해결의 돌파구로 여겨졌던 국제결혼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청 보도자료²⁶⁾에 의하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도에는 2009년보다 3.8% 감소한 11,245건으로 나타났다. 약간 감소한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나, 총 이혼건수에 비해 외국인과의 이혼이 내국인과의 이혼보다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보다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이혼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총 이혼 중에서 다문화가정이혼은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평균동거기간은 외국여성의 경우 3.2년, 외국남성의 경우 6.0년으로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인 부부 평균 동거기간인 14.0년에 비해 짧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남성이 외국인 여성과의 짧은 동거기간과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는 통계결과는 국제결혼은

25)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viii-ix.

26) 통계청, 2010년 이혼통계, <http://kostat.go.kr>.

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가정 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중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심층에는 이질적인 것에 대해 배타적이고 이(異)문화를 배척하는 한국문화, 특별히 가족과 혈연중심인 보수적인 농촌문화의 토착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문제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방식의 차이, 성격 및 문화적 인식의 차이 등이 있으며 자녀문제로는 유아와 자녀의 학업지도 및 교육,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이 있다. 특히 한국사회가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은 어머니가 교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양육환경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시부모 및 친인척과의 갈등으로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전통적인 며느리로서의 의무에 대한 강조, 잦은 간섭 등이 꼽히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편견, 가정경제의 어려움도 크다고 보고된다.²⁷⁾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유린 현상이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내유입과정에서 드는 막대한 비용을 남성이 모두 감당하게 됨으로 인해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평등관계보다는 주종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국적을 획득하기까지 결혼이민자는 2년 동안 체류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야한다. 이는 위장결혼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생긴 법 개정²⁸⁾이다.

27) 송미경,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상담의 모색", 41-51.

28)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 이들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할 경우, 아이를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이혼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셋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의 문제이다. 중국의 경우 문화혁명을 통해 남녀평등 사회로 거의 전환되었고,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가부장제인 한국과 달리 ‘양변제’ 가족제도²⁹⁾가 대부분이다.³⁰⁾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중심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와 맥을 같이 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갈등의 양상이 크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은 시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음식조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에 따른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이해부족,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음주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해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온 가치관과의 충돌로 인해 다양한 감정(분노, 증오, 좌절, 적대감, 혼동, 공포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다양한 행동(싸움, 차별, 폭력, 움추림, 거부, 우울, 병, 고립 등)으로 나타난다.³¹⁾

넷째,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특히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언어가 달라서 제대로 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국제결혼가정 중에서는 아내폭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 4명 중 1명이 신체적 폭력을, 그리고 성 학대를 당했다고 보도한다. 다문화가정은 심한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일반가정에 비해 높아 여성가족부의 2010년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2003년 12월 국적법 간이 귀화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하였을 경우, 또는 미성년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9) 부계와 모계를 모두 같이 존중하는 것으로 가족 안에서 부부가 상대적으로 평등하며 상보적인 역할을 한다.

30) 구정화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0), 79.

31) 이기숙, “문화다양성과 가족생활교육”,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여성연구논집』 제19집 (2008, 4): 6-7.

여성의 40.9%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 유형별 피해율은 신체적 폭력 13.4%, 정서적 폭력 21.5%, 경제적 폭력 15.3%, 성학대 5.2%, 방임 22.5%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이혼율도 꽤 높은 편이다.³²⁾

다섯째,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로는 학업, 직업 및 진로문제, 언어문제, 인성·사회성·따돌림과 같은 인간관계 문제, 정체성 문제, 학교적응문제 등을 들고 있다.³³⁾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풍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돈을 겪을 수 있다.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 충격과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은 자녀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친구들과 다른 외모, 외국인 부모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사회와 또래들의 따돌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은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의 어려움을 갖게 되어 여러 가지 정서·행동상의 문제들을 가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연구진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데 10명중 1명꼴로 초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 그리고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자는 10명 중 2명 정도라는 통계수치를 나타낸다고 한다.³⁴⁾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한국, 아시아, 한국과 아시아가 결합된 제 3의 정체성 등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의 단일민족 교육문화만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의 경우 입학을 기피하거나 통합교육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³⁵⁾

32) 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33) 김광수·정태희, “다문화가정 학생지도를 위한 학교상담의 방향과 과제”,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20권 2호(2010, 1): 197-213.

34) 조영달 외,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8.

35) 손현숙·박세정,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이공대학, 『論文集』 제36집(2007, 8): 131.

여섯째,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주민들은 전지구화의 흐름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니즌(denizen)’³⁶⁾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로 ‘이주노동자’ 나 ‘결혼이민자’와 같은 주변화 된 범주인 ‘마지즌(margizen)’³⁷⁾으로 구분되어 한국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다. 한국 사회는 ‘데니즌’들의 문화에는 우호적이며 교류를 원하지만, 이주노동자나 아시아권 결혼이민자들인 ‘마지즌’의 문화에는 별 관심을 쏟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위 경제 선진 국가 출신 백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반면, 동남아국가와 같이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경향이 강한 차별의식을 보이고 있다.³⁸⁾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는 이주민들은 한국보다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아시아의 여성들이 많다. 이들은 마지즌으로 인식되어 한국 사회에서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돈 때문에 결혼한’, ‘친정으로 돈을 보내려고 혈안이 된’ 등의 편견과 차별의 시선들과 직면하게 된다.

북한이탈의 새터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새터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대인관계 갈등 및 차별에 대한 두려움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⁹⁾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및 신체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외국계 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이외에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36) denizen: 글로벌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러 이동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업이 보장해주는 안전망과 사회적 존중감을 즐기는 특권화된 이주민이다.

37) marginal+citizen: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본국을 떠난 이들은 진출국에서 '주변적 존재'로 살아간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불법이주노동자이거나 어떤 방식의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는 임시적 이주 노동자이다.

38)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1호(2006, 5): 170-171.

39) 김희경·신현균,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4호(2010): 707-724.

에서 다양한 언어적 사회규범적, 대인관계상의 어려움 등을 추가로 경험하여 이는 결국 불안, 우울 및 신체화 증상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⁰⁾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여러 문제들과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유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심리상담의 필요성이 높ی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행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 교회나 기독교상담분야도 마찬가지이다.

4) 다문화가정 한국인가족구성원의 어려움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가족구성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가족문화와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가족문화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남성위주의 가치관, 가문의 영속화와 가족 간의 강한 유대감, 개인의 이익보다 가족의 체면과 가족공동체의 이익추구, 지나친 서열의식과 같은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국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회피하려는 문화적 정서가 있어, 자신의 집단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사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정서를 갖고 있다.⁴¹⁾ 한재희는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사회가 서구화와 도시화에 따라 부부중심의 생활, 수평적인 부부관계, 여러 형태의 가족구조, 상속제도의 평등화, 부모부양의무의 다양화 등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현격하게 축소시켰고 결혼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혈연관계보다는 정서적인 개인욕구를 중요시하며 개인책임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구조의 형태와 기능이 바뀐다고 해서 가족문화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이나

40) 김민선·석분옥·박금란·서영석,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및 신체화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4호(2010): 725-745.

41) 한재희, “한국의 가족문화와 다문화상담”, 120-122.

심리적 특성이 쉽게 바뀌지 않고 오늘날의 한국가족은 구조적 핵가족의 모습에 심리적 대가족의 관계가 깃들어 있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다문화상담자는 사회구조적인 가시적 변화형태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²⁾

조현상은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본래 이민국가라는 서구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전해 왔는데 한국사회의 현실과 상황에 적절한 비판과 검토없이 그 개념을 한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문화주의의 사회적 수용을 강요하는 것도 성급한 면이 있으며 당위적이고 도덕적인 다문화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⁴³⁾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시부모세대는 단일민족의식을 중요시하고 가부장적 위계를 중시여기며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강한 전통적인 관습을 지니고 있다.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아들을 위해 외국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하였으나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⁴⁴⁾

그동안 국제결혼을 함으로써 억울하게 당한 남편들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⁴⁵⁾ 결혼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결혼했지만 다문화가정 남편 중에는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해 입국 후 바로 가출하는 여성, 온갖 거짓말로 남편의 돈을 뜯어낸 뒤 연락 두절되는 여성 등 불순한 목적으로 결혼한 여성들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남성들이 당하는 피해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게다가 문제의 여성들이 사실과 달리 남편을 폭력 남편이라고 주장하면 인권단체는 물론 경찰로부터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주여성은 피해자

42) 한재희, “한국의 가족문화와 다문화상담”, 122.

43) 조현상,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161-169.

44) 한숙자·박경옥,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의 교회적용”,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4권 (2010): 289.

45) “다문화의 그늘”, 「연합뉴스」, 2011.9.26.

로, 남성은 폭력 남편, 변태 남편으로 몰리면서 매도된다는 것이다.⁴⁶⁾

국제결혼 이외에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해충돌을 빚을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은 건설 공사장이나 소규모 공장 등 노동 현장에서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외국인 차별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일자리 시장의 보충인력이 아니라 대체 인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국인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고 힘든 서민들의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일기도 한다. 반다문화 정서가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다문화 정책을 진행하면서 일부 오히려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일도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는 이도 있으며, 소득계층 구분없이 주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학의 다문화 특별전형 등이 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마저 주민센터 게시판에 건강검진, 여행 등 다문화 무료 프로그램만 소개돼 있는 것을 보고 정부 지원이 모두 다문화 가정에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⁴⁷⁾ 전문가들은 반다문화정서의 해법으로서 낯선 것을 배척하기보다는 외부문화가 새로움을 창조할 원천이라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다양성을 긍정하는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기고, 다문화가 결국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기 위한 내국인 대상 다문화 사회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⁴⁸⁾

다문화상담자는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한국적 다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정을 상담할 때 부부 어느 한쪽입장에 치우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상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다문화가정상담자의 경험

상담서비스에는 다문화상담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

46) “다문화의 그늘”, 「연합뉴스」, 2011.9.26.

47) “다문화의 그늘”, 「연합뉴스」, 2011.9.26.

48) “다문화의 그늘”, 「연합뉴스」, 2011.9.26.

고, 다문화가정상담자의 현장경험에 대해 질적으로 접근한 한 연구는 다문화상담자들의 대부분이 에너지소진과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⁴⁹⁾ 이 연구에서 다문화상담자들은 전문심리상담업무보다는 행정업무가 과다해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정체성 혼란을 겪고 개인동기나 보람 등의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고립감이나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전문가로서는 다중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수나 지원 등의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내담자의 배경과 문화적 차이, 가치관, 생활양식, 의사소통 양식 등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더불어 다문화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특수한 역량 때문에 다문화상담자는 일반상담자보다 좀 더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이 연구의 다문화상담자들은 자신들의 고립감해소와 과도한 업무를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과의 공조와 기관들의 연계, 실무에서의 매뉴얼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문화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이중문화 직원의 채용 및 통역 서비스 등의 서비스 접근성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다문화상담자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동정과 연민, 온정주의적 상담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담자와 내담자간 관계적이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공감되었을 때 진정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때, 다문화상담자의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상담태도보다는 상담자의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연구를 통해, 다문화상담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시도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볼 때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독교

4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여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8). 주은선·이현정, “결혼이주여성대상 다문화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819에서 재인용.

교상담도 다문화상담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슈퍼비전과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 전문적 경험과 훈련, 자격증제도와 같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4.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경적 고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돕도록 하기 위해 기독교상담자는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비춰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인식과 가치관을 점검하며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1)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약적 관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으므로 현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뿌리에 그 민족적 기원을 둔다고 볼 수 있다.⁵⁰⁾ 그 후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패역한 땅을 심판하셨으나,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시조로 하는 그들의 후손들이 지구상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창 9:18-19).⁵¹⁾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브람에게 주어진 바 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과 후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창 12:1-4; 13:14-17)을 새롭게 함에도 불구하고(창 15:9-11),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0년이란 긴 세월을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다(창 15: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만의

50) 오태균,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적 과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기독교교육정보』 (2006, 12): 193.

51) 성서아카데미, 『그랜드종합주석 1』 (서울: 제자원, 1999), 314.

구원자가 아닌 모든 인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월절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출 12:49)라고 규정하셨다.⁵²⁾ 이처럼 ‘우거하는 타국인’, ‘우거하는 이방인’ 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혈통에게도 적용된다는 광의성과 개방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출 12:19; 출 12:49; 레 16:29; 레 17:8; 민 9:14; 신 31:12).

출 22:21절이 포괄적 의미에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규정이라면, 출 23:9절은 재판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이방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판결을 내림으로 학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형편과 상황을 잘 알터이니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시므로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단순한 놀림거리요, 수탈의 대상이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이방인 보호 규정은 사실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드문 법이었다.⁵³⁾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전의 애굽 생활을 통하여 나그네 생활을 하였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출 22 : 21; 레19:33, 신24:14) 어려움에 처한 이방인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국인, 이방인들도 당당히 살 권리가 있음에 대해 말씀하신다.

52) 오태균,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적 과제”, 193.

53) 성서아카데미, 『그랜드 종합주석 2』, 309, 299.

또한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공의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도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던 이방인에 대해서도 해를 끼치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출 22:21).⁵⁴⁾ 하나님께서는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 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셨으며(레 19:9-10절),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함께 생활하되 그에게 이삭을 취하지 말라고(레 25:35-37)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잠 14:31)라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의무 사상의 근거는 하나님 공의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정의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약자들 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과 사랑이 이스라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 사상의 신성한 원칙이 되었다.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와 지혜문학의 근본을 흐르는 중요한 정신이라 할 수 있다.⁵⁵⁾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현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타국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⁵⁶⁾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신 모습과 삶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들을

54) 오태균, “사회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적 과제”, 193.

55) 광희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문화 가족을 세우는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신대학교 대학원, 2010), 40.

56) 오태균,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교육적 과제”, 195.

방문하시어 그들을 만나 위로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증거 하시 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나 로마 군대 백부장 같은 외국 인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방지역에 거주하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나인성의 과부, 가난한 자, 문둥병자, 멸시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 지셨다. 이처럼 소외된 자, 특히 이방인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보이셨던 예 수님의 다문화 사역은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역사적인 배경 하에 지리 적으로 이주민들이 끊임없이 왕래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인 갈릴리는 ‘이방 인들의’ 혹은 ‘외국인들의’ 뜻을 함축하고 있어 갈릴리는 인종의 다양성과 혼합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대부분 이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분 께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증거이 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당하고 배척받는 하층민과 이주민, 혼 혈인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만나주심으로 당시 편견과 무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던 주변문화와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⁵⁷⁾

한편 사도행전에는 초대교인들의 삶이 잘 묘사되어 있다. 성령의 충만 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코이노니아와 함께 떡을 떼는 것과 기도생 활을 병행하면서 성도들 간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성 령의 충만함 가운데 희생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됨으로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 대하게 실천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교회는 명 실상부한 다문화 가족들의 공동체였었다. 이들의 섬김과 봉사, 헌신은 초

57) 김재중, “성경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정”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2010), 26-27.

대 예루살렘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였다. 서신서 역시 당시 초대교회의 윤리적 교훈들로 가득 들어있다. 실천부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므로 하나님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⁵⁸⁾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선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차별 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구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마음을 지니고 현대의 이방인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시대의 이방인이었던 오늘날의 이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복음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정의롭고, 더불어 사는 교회, 사회, 국가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5.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

한국가족문화에 따른 다문화상담을 위해 한재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⁵⁹⁾

첫째, 한국문화에서 너와 내가 '내(內)집단' 이 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므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우리를 형성하는 상담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 가족의 중요성과 효의 개념이 인간관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담목표는 원가족과의 분화보다는 원가족과의 관계속에서 자기통합을 지향하는데 두어야 하며, 셋째, 숨겨진 감

58) 광희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문화 가족을 세우는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43.

59) 한재희, “한국의 가족문화와 다문화상담”, 126-130.

정에 대한 성급한 직면보다는 단계적으로 객관적 자기와 만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한국의 엄부자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야 하고, 다섯째, 개인적인 자기표현방식보다 집단적인 자기표현 방식을 선호하는 특성에 따라 집단적 자기표출의 놀이문화를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여섯째, 사머니즘의 형성이 뿌리 깊은 한국인의 심성을 반영, 내담자의 영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상담에 여러 연구들은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과제로서 다음을 제안하고 있다.⁶⁰⁾

첫째, 다문화상담자는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위해 특정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주어야 하고, 둘째, 다문화가족구성원들의 기대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대와 현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절충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강점을 인식하고 격려함으로써 인정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이들이 스스로의 자원을 발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넷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교육, 관계증진 프로그램과 상담이 필요하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과 자녀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부부상담,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 훈련이 필요하고, 여섯째,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동료상담이 필요하다. 일곱째, 다문화가정에 찾아가는 서비스상담, 예를 들어 방문교육도우미의 상담활동 등이 필요하고, 여덟째, 다문화상담 연구 및 상담자 양성, 훈련 등을 통한 다문화상담의 전문성 확립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⁶¹⁾

60)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206-213; 송미경,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45-48.

61)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206-213.

새터민을 위한 기독교상담전략에 관한 한 연구는 새터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독교상담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다문화가정에 확대 해석한다면, 첫째,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로 삶의 소망과 함께 목표를 새롭게 형성하도록 돕고, 둘째,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며, 셋째, 신앙의 실천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삶과 생활태도로 한국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영적 성장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기독교상담자는 다문화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국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욕구와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말씀에 부합되는 상담방법을 찾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상담전략으로 첫째, 사무실안에서의 상담뿐 아니라 지역사회속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둘째, 다문화가정의 기독교신자를 동료상담자로 훈련해서 도울 수 있는 동료상담, 셋째, 다문화가정의 위기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위탁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화 및 컴퓨터 상담의 개설과 교회 안의 전문인 양성, 넷째, 다문화가정에게 교육과 상담으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예방상담, 다섯째, 교회에서의 집단상담, 여섯째, 상담하기를 꺼려하는 다문화가정의 특성 상 효율적인 단기상담의 적용, 일곱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문화의 차이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타문화상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⁶²⁾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다문화 가정기독교상담자가 다문화가정과 상담할 때 그들의 문제에 대해 성경을 통해 소망을 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담자가 무종교이거나 불신자일 경우 상담 첫 회기부터 상담자는 내담자

62) 강경미,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정의 한국사회 부적응문제와 기독교상담 전략”, 129-139.

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며 내담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준비되어 있을 것을 늘 생각하며 상담 전체과정을 통해 성령이 임재할 것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신뢰를 형성하며 소망을 주고 다문화인들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호소문제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해석해 주며 당면한 문제에 대해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변화를 돕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⁶³⁾

위의 연구에서 나타난 제언점을 논의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상담전략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마 18:29)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정구성원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도움으로써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복음 선교의 기회로 삼는다.

둘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꾀하도록 돕는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적에 따라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상담할 때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하며 성경말씀에 부합되는 상담방법을 찾아 돕는다.

셋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자는 다문화가정의 특정문화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태도로 그들의 경험에 대해 공감적으로 이해해주고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준다. 다문화상담자는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한국적 다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정을 상담할 때 부부 어느 한쪽입장에 치우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않고,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구

63) 서은경,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193-198.

성원이나 한국인가족구성원의 입장과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담에 임해서 가족구성원이 서로의 기대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수준에 조율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인 문제아 혹은 부적응자가 아닌 자아실현경향을 지닌 충분히 기능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중문화를 동시에 수용하며 자라기 때문에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갖추었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부의 역할, 모의 역할훈련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이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나 육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교육상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상담은 결혼이주여성 당사자뿐 아니라 남편이나 시부모와 같은 한국인가족구성원에게도 행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남편을 위한 결혼준비교육이 필요한데, 다문화가정의 이혼률 증가는 준비없는 국제결혼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면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관 등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자조집단과 같은 동료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동료상담자로 활동할 때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소속감을 갖게 되며,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 동료의 모습을 학습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일곱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문화가족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자를 둘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유학생 등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봉사 도우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멘토링, 국제행사의 통역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⁶⁴⁾ 교회나 기독교상담기관도 이런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여덟째, 다문화가정의 위기상황을 평가하고 위탁기관에 인계할수 있도록 교회나 기독교상담기관의 전화 및 컴퓨터상담의 개설, 전문인양성이 필요하다.

아홉째,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실시 후 찾아가는 상담자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방문상담도우미의 활동은 결혼이주여성을 홀대하지 못하도록 견제기능을 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기능도 한다.

열 번째,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복지 및 상담을 포함한 사회적 시설과 연계해줄 수 있는 상담자의 안내자 역할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가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이용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⁶⁵⁾

64) “외국유학생, 대학에서 출입국 서비스 받는다”, 「법무부 블로그」, 2010.02.19.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748>.

65) 주은선 · 이현정, “결혼이주여성대상 다문화상담관련 종사자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841.

III. 닫는 글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마28:29)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가치관을 점검하고, 기독교상담이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향한 복음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관점과 말씀에 따라 상담하며, 상담할 때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한다.

복음선교차원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결혼이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의 새터민 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유학생가정도 포함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자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가족구성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가해자는 한국인폭력남편과 시부모, 편견을 갖고 있는 이웃이라는 선입견보다는 전통적인 한국문화와 가족문화를 지닌 다문화가정의 한국인가족구성원의 어려움도 공감할 수 있을 때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족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기독교상담자가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서로의 문화적 차이, 기대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 다문화가정으로 하여금 기대와 현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절충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결혼준비교육, 부모역할훈련과 같은 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자조집단과 같은 동료상담프로그램, 지역사회 속으로 찾아가는 상담, 다양한 서비스시설을 소개하고 연계하는 안내상담, 위기상황을 위한 전화 및 인터넷상담의 개설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그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는 최근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독교상담적인 프로그램개발이나 그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상담으로는 다문화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영적 성

장을 도울 수 없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 연구를 보면, 신앙정착을 위한 교회 교육적 접근, 선교, 기독교인의 인식변화와 영향 요인 등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상담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준비교육이나 부부갈등해소프로그램에 대한 기독교상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성경말씀의 적용이나 그 효과성 등이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상담자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훈련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게 대두되고 있다. 일부 기독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대학에서 다문화가정상담사에 대한 교육과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와 상관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격증도 무종교나 타종교인들을 모두 포함한 일반 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의 정체성을 갖고 다문화가정을 상담하여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독교상담분야의 교육과 프로그램, 자격증제도의 도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강경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의 한국사회 부적응문제와 기독교상담 전략”.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7권(2006): 117-144.
- 곽희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문화 가족을 세우는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신대학교대학원, 2010.
- 구정화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0.
- 김광수·정태희. “다문화가정 학생지도를 위한 학교상담의 방향과 과제”.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제20권 2호(2010, 1): 197-213.
- 김민선·석분옥·박금란·서영석.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및 신체화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4호(2010): 725-745.
-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 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1호(2006, 5): 143-189.
- 김재중. “성경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가정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정”.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대학원, 2010.
-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을 통한 목회성장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2010.
- 김희경·신현균.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4호(2010): 707-724.
- 서은경.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성경적상담학회. 『성경과 상담』 제9권 (2009, 12): 174-202.
-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2005.
- 성서아카데미. 『그랜드 종합주석』. 서울: 제자원, 1999.
- 손현숙·박세정.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이공대학. 『論文集』 제36집(2007, 8): 121-139.

- 송미경.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제23집(2008): 41-51.
- 양승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8.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 사회의 이해(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동녘, 2008.
- 이기숙. “문화다양성과 가족생활교육”.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여성연구논집』 제19집 (2008, 4): 211-242.
- 이재분 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
- 임은미·정성진·김은주. “국내 다문화 연구와 다문화 상담 연구의 현황”.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10권 3호(2009): 1291-1304.
- 조영달 외.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조한숙.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10.
- 조현상.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9.
- 주은선·이현정. “결혼이주여성대상 다문화상담관련 종사자들의 현장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4호 (2010, 12): 817-846.
- 한숙자·박경옥. “다문화가정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의 교회적용”.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4권(2010): 283-310.
- 한재희. “한국의 가족문화와 다문화상담”. 백석대학교, 『진리논단』 제16호 (2008): 117-132.
- 한재희. 『한국적 다문화 상담』. 서울: 학지사, 2011.
- Bennett, Christiner.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김옥순 외 역.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0.
- Pedersen, Paul. *Handbook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Awareness*. Alexandria, VA.: America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94..
- Sue, Derald W., Ivey, Allen E. & Pedersen, Paul B. *Theor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Therapy*. 김태호 외 역. 『다문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태영출판사, 2008.

Watts, R. J. "Elements of a Psychology of Human Divers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1992): 116-131.

“조각나는 다문화가정”. 「뉴시스」, 2011.6.19.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http://www.mw.go.kr/front>.

“외국유학생, 대학에서 출입국 서비스 받는다”. 「법무부 블로그」, 2010.02.19.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748>

양혜후. “다문화를 향한 이주정책들의 문제점과 그 대안”. (이주여성인권연대, 2007). <http://www.eulim.org/>.

“다문화의 그늘”. 「연합뉴스」, 2011.9.26.

위키피아, <http://ko.wikipedia.org>.

통계청. 2010년 이혼통계. <http://kostat.go.kr>.

【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Strategy to Multicultural Family

Sook Ja Han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the status and practices of counselling services for those families and the Bible-based perspectives on those families; and summarizes and discusses insights and implications of previous studies on the techniques of counseling those families, so that it suggests Christian counselling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Following the God's order of "Therefore, as you go, disciple people in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Matthew 28:29)," Christian counsellors must revisit their own consciousness and thought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nd try to evangelize those families by providing counselling services.

When truly understanding and emphasizing not only the difficulties that foreign family members go through in multicultural families, but also those of Korean family members who retain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n families, the Christian counsellors can help them participate in family counselling sessions and programs, understand each other's expectations and demands, and reconcile cultural differences at reasonable levels. In order to counsel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 preventive programs such as parenting training, and peer-counselling programs; and to provide visiting services, and hotline-or internet-based services. Also needed for Christian counsellors are specialized education, supervis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hat which set them apart from general counsellors.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counseling, marriage migrant women, mission